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은미^{1*}, 김은재²

¹한영대학교 간호학과, ²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un-Mi Ji¹, Eun-Jae Kim²

¹Depart. of Nursing, Hanyeong College, ²Depar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Received September 29, 2021; Revised October 15 2021; Accepted November 04, 2021)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tructured-questionnaire survey with 179 nursing students to look into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d 3.79 on average out of 5points, self-leadership 3.79 on average, and clinical competence 3.75 on average. It was found that clinical competence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r=.62$, $p<.001$) and self-leadership ($r=.57$, $p<.001$).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were nursing professionalism($\beta=.437$, $p<.001$), self-leadership($\beta=.350$, $p<.001$) and explanatory power was 46.4%.

Conclusions. Given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al institutes need to find an educational plan which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jempsy@nate.com

I. 서론

1.1. 연구 필요성

현대사회의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등을 비롯한 보건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¹⁾.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학과 교육과정 운영 및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²⁾.

임상수행능력이란 간호학생이 간호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며, 간호교육의 최종결과물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확고한 간호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무 상황에서 간호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간호중재,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³⁾.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간호사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이다⁴⁾. 간호대학생들의 확고한 이념과 목표가 없는 간호활동은 참다운 간호상과 간호현상의 부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므로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⁵⁾.

또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되어진 개인적인 특성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⁶⁾. 셀프리더십은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고무되어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며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⁷⁾.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적학습, 비판적사고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지만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세 변수 간 관련성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임상수행능력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 관련성 및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J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실습 수행

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익명성 보장, 철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200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79명이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에 의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에서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일 경우에 최소 표본수 9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수는 충족하였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⁹⁾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¹⁰⁾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¹⁰⁾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¹¹⁾가 개발하고 Kim¹²⁾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6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¹²⁾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Schwirian¹³⁾의 Six-Dimension을 기반으로 Lee 등¹⁴⁾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¹⁵⁾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총 45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¹⁵⁾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7$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남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18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6.8%, “여성”이 83.2%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70.4%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47.5%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2.9%, “부모님의 권유” 13.4%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4%, “보통”이 50.3%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40.2%, “보통”이 58.7%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이 36.9%, “보통”이 59.6%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9)

Variable	Categories	N(%)	M±SD
Gender	Man	30(16.8)	-
	Woman	149(83.2)	
Religion	Christian	23(12.8)	-
	Catholic	6(3.4)	
	Buddhism	23(12.8)	
	Atheism	126(70.4)	
	Etc	1(0.6)	
Major select motivation	Grade level	7(3.9)	-
	Aptitude & Hobbies	41(22.9)	
	Employment rate	85(47.5)	
	Parental recommendation	24(13.4)	
	Volunteer	6(3.4)	
	Overseas employment	1(0.6)	
	Family hospitalization	7(3.9)	
	Etc	8(4.5)	
Self-satisfaction	Dssatisfaction	6(3.4)	2.43 (.56)
	Commonly	90(50.3)	
	Satisfied	83(46.4)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1.1)	2.39 (.51)
	Commonly	105(58.7)	
	Satisfied	72(40.2)	
Cinical Training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6(3.4)	2.34 (.54)
	Commonly	107(59.8)	
	Satisfied	66(36.9)	
Human relationship	Bad	1(0.6)	2.59 (.51)
	Commonly	72(40.2)	
	Good	106(59.2)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9점, 셀프리더십은 3.70점, 임상수행능력은 3.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Variable	M±SD
Nursing Professionalism	3.79(.51)
Self-Leadership	3.70(.55)
Clinical Competence	3.75(.5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신에 대한 만족도(F=10.58, p<.001), 전공만족도(F=17.01, p<.001), 임상실습만족도(F=12.7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학과선택동기(F=2.80, p<.01), 자신에 대한 만족도(F=7.28, p<.01), 전공만족도(F=10.30, p<.001), 임상실습만족도(F=5.75, p<.01), 대인관계(F=5.16,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과선택동기(F=3.04, p<.01), 자신에 대한 만족도(F=7.59, p<.01), 전공만족도(F=11.84, p<.001),

임상실습만족도(F=7.04, p<.01), 대인관계(F=5.51,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M±SD	t/F	post-hoc	M±SD	t/F	post-hoc	M±SD	t/F	post-hoc
Gender	Man(a)	30	3.67±.54	-1.42	-	3.77±.54	.66	-	3.79±.61	.41	-
	Woman(b)	149	3.81±.50			3.69±.56			3.74±.54		
Religion	Christian(a)	23	3.84±.43	.39	-	3.73±.51	1.22	-	3.83±.53	.74	-
	Catholic(b)	6	4.00±.51			4.09±.72			3.93±.84		
	Buddhism(c)	23	3.72±.40			3.80±.34			3.60±.38		
	Atheism(d)	126	3.79±.54			3.66±.58			3.76±.57		
	Etc(e)	1	3.78			4.00			3.93		
Major select motivation	Grade level(a)	7	3.83±.67	1.30	-	3.90±.75	2.80**	c<b, f<b, c<d, c<f	3.92±.75	3.04**	b<c, c<d, c<f, e<f
	Aptitude & Hobbies(b)	41	3.95±.39			3.85±.41			3.91±.50		
	Employment rate(c)	85	3.71±.50			3.54±.57			3.60±.51		
	Parental recommendation(d)	24	3.83±.63			3.86±.58			3.96±.63		
	Volunteer(e)	6	3.92±.32			3.93±.30			4.01±.21		
	Overseas employment(f)	1	4.44			4.72			4.82		
	Family hospitalization(g)	7	3.73±.58			3.86±.44			3.64±.52		
	Etc(h)	8	3.68±.53			3.70±.58			3.62±.525		
Self-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6	3.64±.52	10.58***	b<c	3.81±.75	7.28**	b<c	3.79±.71	7.59**	b<c
	Commonly(b)	90	3.63±.48			3.55±.56			3.60±.50		
	Satisfied(c)	83	3.97±.48			3.86±.48			3.92±.56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2	4.11±.63	17.01***	b<c	4.50±.71	10.30***	b<a, b<c	4.50±.71	11.84***	b<a, b<c
	Commonly(b)	105	3.62±.51			3.57±.58			3.60±.51		
	Satisfied(c)	72	4.03±.39			3.89±.44			3.95±.54		
Cinical Training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6	3.57±.61	12.78***	b<c	3.59±.88	5.75**	b<c	3.61±.80	7.04**	b<c
	Commonly(b)	107	3.66±.48			3.60±.56			3.64±.50		
	Satisfied(c)	66	4.03±.46			3.88±.47			3.75±.56		
Human relationship	Bad(a)	1	3.61	2.65	-	3.94	5.16**	b<c	3.29	5.51**	b<c
	Commonly(b)	72	3.69±.51			3.55±.63			3.60±.57		
	Good(c)	106	3.86±.50			3.71±.55			3.86±.52		

*p<.05, **p<.01, ***p<.001

3.4.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r=.62, p<.001$), 셀프리더십($r=.5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r=.51,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1		
Self-Leadership	.51***	1	
Clinical Competence	.62***	.57***	1

*** $p<.001$

3.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VIF는 모두 10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간호전문직관($\beta=.437, p<.001$)과 셀프리더십($\beta=.350, p<.001$) 모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셀프리더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에 의한 설명력은 46.4%이었다(Table 5).

Table 5. Factor influencing of Clinical

	B	SE	β	t	p
Constant	.653	.250	-	2.609	<.01
Nursing Professionalism	.477	.070	.437	6.840	<.001
Self-Leadership	.349	.064	.350	5.472	<.001

F 78.040 Adjusted R² .464

IV. 고찰 및 결론

4.1.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Jang과 Moon¹⁶⁾의 연구에서 3.80점, Seong¹⁷⁾의 연구에서 3.76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3.60점으로 나타난 Kwon과 Yeun⁵⁾의 연구와 3.67점으로 측정된 Ko와 Kim¹⁸⁾의 연구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즐거움이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한 Han 등¹⁰⁾의 연구결과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요인결과는 이라는 Park과 Yu의¹⁹⁾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해보고 전공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5점 만점에 3.70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Dong과 Choi⁸⁾의 3.63점, Yang과 Moon²⁰⁾의 3.72점, Lee와 Jo²¹⁾의 3.74점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Kim과 Park²²⁾의 3.49점, Park²³⁾의 3.44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 수와 학년을 달리하였으므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대상자에 1학년이 포함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셀프리더십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과 선택동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높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생활하는 그룹의 셀프리더십이 더 높음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간호문제와 다변적인 임상간호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Dong과 Choi⁸⁾의 연구에서 3.8점, Kim²⁴⁾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나타나 비슷하게 특정되었다. 그 외의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저학년의 경우 교내 실습 및 임상실습의 경험이 고학년에 비해 미비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과선택동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Yu²⁵⁾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Yang²⁶⁾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환경과 임상실습 지도자에 대한 만족감이 실습 의욕을 자극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므로 실습기관에 대한 환경 및 실습지도자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이 셀프리더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46.4%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상승시키는 방안이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소유한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을 보유한 유능한 간호사로 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간호가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4.2.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은 모두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은 학과 선택동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학과 선택동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두 변수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력은 46.4%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즉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지 않고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전문직관 및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은 일 지역 간호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Kang YH, Hong MJ.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sty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 16(5):2841-2853.
2. You KH, Eum YR, Seo YO, Song RY, Jeon KJ, Jo NO. The comparison between nursing graduates' performance and clinical nurses' performance of clinical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1):147-159.
3. Lee EJ, Yi YJ, Kim YS, et al. Original Articles: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ed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2):218-225.
4.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0;27:114-120.
5. Kwon YM, Yeun EJ.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07;13(3): 285-292.
6. Neck, C. P., Stewart, G. W. and Manz, C. C.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95;13: 278-302.
7. Kang YS, Choi YJ, Park DL, Kim IJ.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143-151.
8. Dong HJ, Choi MS. TI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6;23(4):373-382.
9.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10. Han SS, KIm MH, Yeun E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 73-79.
11. Manz Charles C.. *The 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83.
12. K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2.
 13. Schwirian PM..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 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1978;27(6):347-351.
 14. Lee WH, Kim CJ, Yoo JS, et al.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Journal of Nursing Science*, 1990;13:17-29.
 15. Choi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16.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4):344-352.
 17. Seong JA, Bang SY, Kim SY.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18. Ko YJ, Kim Y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19. Park MJ, Yu HN.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38-47.
 20. Yang M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pp.216-225.
 21. Lee JY, Jo MH.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of Nursing Students in a Local Are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evance of fragrance and problem-solv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2012;13(3):241-253.
 22. Kim SH, Pa SY.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557-1565.
 23.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27-236.
 24. Kim MS. A Structural Model of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related Variables. PhD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15.
 25. Yu H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2);1129-1144.
 26. Yang JJ.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159-165.